하나님백성과 바알백성의 같은 시작

(역대하 23:1~21)

12.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13.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14.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5.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 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16.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17.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18.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과 바알 백성의 같은 시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바알 백성의 같은 시작'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알의 백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같기 때문인지 선민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의 백성으로 변하는 끔찍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 100% 정확하게 바알 백성이 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토요일마다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를 하면서 뒤숭숭합니다. 촛불집회를 하는 분들이 "이게 나라냐"라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게 보자면 현재의 모습이 정말 나라다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나라답게

되기 위한 몸살을 겪는 것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총리가 실권을 쥐고 행정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뇌물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일반적인 대출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았던 것이 스캔들이 되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특이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이러한 논란이 독일의 대통령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물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러나서 재판을 했는데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 탄핵결정이 맞든지 틀리든지, 또한 탄핵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든지 그르든지 일단 헌법재판소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헌재에 나와서 자기의 입장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법적인 논리로 소명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대통령과 대리인단도 법적 논리로 피력한 후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소란스러울까요? 이렇게 되어야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한 번도 법적 공방을 했다는 뉴스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쪽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마땅히 가야될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이 되든지 않든지 헌재가 바르게 결정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탄핵의 인용이나 기각, 정치적인 진보나 보수의 방향 등을 뛰어넘는 의무와 그 의무에 따른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소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바알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알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됨과 바알의 백성 됨의 출발점이 같습니다. 즉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결말로 매듭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 왕국의 여호람 왕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여호람은 훌륭한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고 여호람 왕도 죽고 왕자들도 아라비아 군대에 의해서 죽고 오직 막내아들인 아하시야만이 살아남아 왕이 되

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 의해서 저지되고 이십이 세였던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으나 일 년 만에 죽게 됩니다.
북 왕국의 외삼촌 요람 왕의 병문안을 갔다가 반역을 일으킨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후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들이자 다윗 가문의 자손들이었던 이들을 모두 학살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6년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 왕국 유다에서는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윗 언약에 기초하여 다윗 가문의 왕위가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왕권을 잡게 되면서 6년간 남 왕국에는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 아달랴가 손자들을 학살할 때에 한 살 된 요아스가 여호람 왕과는 배다른 고모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제사장이었던 고모부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 6년 동안 성전에서 양육되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는 아달랴에 대해 모반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달랴가 이것을 성전에서 보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소리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인들에게 지시하여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과 왕을 데려다놓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백성들이 바알 신당으로 몰려가서 신당을 부수는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16~18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후에 바알 신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인 맛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곱 살 요아스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대표하며, 아달랴와 맛단은 바알 신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백성과 바알의 백성을 대비시켜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바알 신당을 부쉈다'는 것은 곧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바알 신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바알 백성의 출발이 같으나 결과가 다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는 아세라나 아스다롯 여신들과 마찬가지로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먼저 돈 많이 벌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것이고, 하는 일마다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 소원을 이룰 방법론으

로 등장한 것이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 숭배에 대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께 숭배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습니다. 바알의 백성들은 이러한 소원을 신당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이러한 마음이 죽길 바랐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육체를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할 때 훌륭한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출발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발점은 같습니다. 어제까지 십자가 생활화로 잘 살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일이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습니다. 자녀에게나 배우자에게도 결국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같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고 길거리에 좋은 차를 보게 되면 한 번 타보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번제단으로 갑니다. 순간적으로라도 세상의 것으로 인해 기쁘고 만족하길 바랐음을 후회하고 그러한 나의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그 죽음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일 년 된 어린 양이 계속해서 번제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번제가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기뻐하고 소원하던 내가 어린양과 함께 죽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돈 많이 벌고 싶고 부흥하고 싶을 때에 이러한 소원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이왕 태어난 것 기필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부흥해서 보란 듯이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알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알의 백성들이 돈 많이 벌어서 기쁘고 만족할 때에 그 기쁨과 만족을 제거하기 위해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쁨의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일을 완전히 내팽개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일에 대해서 등을

돌릴 때에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 왕국과 같은 단체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지역교회들입니다. 이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남 왕국 유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아달랴 같은 자들이 지배할 때에 암흑기의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선민의 나라인 남 왕국 유다에 바알을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바알을 끌어들인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돈 벌 수 있다며 희망을 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하는 일이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똑같은 출발점을 갖고 있을 때에 십자가 번제단을 제시함으로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이끄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바알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알의 기능에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제시를 합니다. 땅에서 갖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 옛날의 아달랴보다 더 가증스러운 바알숭배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강단을 지배하는 교회는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멸하기 위해서 학살을 자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들의 씨를 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아달랴에게 저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여호야다처럼 바알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는 설교에 대해서, 바알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알의 백성이 된 우리의 이웃 교인들을 십자가 번제단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는 혁명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고,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도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알의 백성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였으나 다른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비록 같은 출발점이라도 많은 사람이 넓은 바알 백성의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택하여 걷게 하시며 약속된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